교육부,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 '부동의'

김 교육감 "최소 정치적 의미 직무유기"

확대간부회의서 "자사고 폐지는 대통령 공약사항" 비난

고교서열화 가속화 예상… 정부 고교체제 개편 더 어려워져

김승환 교육감이 전북도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교육부 장관이 '부동의' 한 것에 대해 신뢰관계를 깬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교육감은 29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사고 폐지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100대 국정과제 속에도 들어가 있다. 그러면 교육부는 자사고 폐지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을 정리했어야 하는데 하나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법률적 의미의 직무유기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정치적 의미의 직무유기를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장관 동의권은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조항이고, 정권이 바뀌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는 '이 조항을 없애겠다' 는 합의를 했다"면서 "이미 사망선고 당한 조항을 교육부가 활용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교육부는 이 결정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신뢰관계의 파괴' 다. 그 잃은 것은 결코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면서 "교육부와 정부는 이 시점부터 더 이상 전북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협력을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다"고 못 박았다.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으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을 둘러싼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주말부터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며 "승소 가능성과 소송형식을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교육감은 "세상의 모든 변혁에는 부단한 노력, 인내, 고통이 따른다"며 "아이들을 살려내는 교육, 아이들에게 정말 가치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일에 전북교육은 앞장서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으로 인해 고교서열화는 가속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일반고 중심으로의 고교체제 개편 또한 미궁으로 빠졌다.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이었던 상산고와 민족사관고, 하나고 등 8개 전국단위 자사고가 모두 현재의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기 때문이다. 전국단위 자사고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전국에서 모집할 수 있어 고교서열에서 최상위층을 이룬다. 의대 및 서울대 진학 실적 등이 우수한 이유다.

교육계에서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통해 입시 실적이 우수한 자사고만 살아남도록 한 것은 현 정부의 고교체제 개편과 근본적으로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6월 "고등학교가 서열화 되고 입시 경쟁이 초등학교에까지 심화된 것은 지난 10년간의 자사고에 대한 교육부 평가"라고 밝혔다. 그러나 상산고와 민사고, 하나고 등 고교서열화 정점에 있는 자사고들은 지위를 유지하며 위상을 더욱 높이는 모순이 발생했다.

내년 재지정 평가를 통과하는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 또한 향후 5년간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정부의 고교체제 개편은 더욱 어려워졌다.

2025년 고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는 전 과목 내신의 성취평가제(절대평가)와 교사의 학생평가권 강화를 근간으로 한다. 하지만 고교서열화 체제는 절대평가 도입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상대평가로 인한 내신 불이익 자체가 사라져 자사고 쏠림현상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름방학엔 전북대와 '필링 코리아'

고교생 · 외국인 학생 초청 한국어 · 문화 체험

올여름 4개국 49명 참가 내달 10일까지 본격 활동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해외 자매결연 대학 및 고교 학생들을 초청, 2주간 '필링 코리아(The Feeling Korea)'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필링 코리아 프로그램은 해당 해외 자매결연 대학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북대의 우수성과 한국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 처음 시작해 매년 여름과 겨울 방학을 이용, 18년째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올해 하계 프로그램에는 4개국 14개 대학 및 고교에서 총 49명의 학생들이 참여한다. 특히 올해에는 미국 콜로라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계 미국인 2명이 참가해 전주와 한국의 문화를 느낄 예정이다.

29일 오후 입학식을 진행한 참가자들은 체험기간 동안 오전에 한국어 수업을 통해 한국어 문법과 기초회화를 익히고, 오후에는 한옥마을 등 전라북도 일원에서 한지공예, 도자기체험, 풍물체험 및 태권체험 등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한다.

이동헌 국제협력본부장은 "필링 코리아 프로그램은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와 전북대의 우수한 교육 환경을 외국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외국인 학생들이 전북대 교환학생이나 학위과정 입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도교육청, 다문화감수성 증진 위한 다언어캠프 운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세계언어체험을 통한 문화다양성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다언어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첫발을 내딛는 다언어캠프는 도내 다문화가정과 비다문화가정 초·중학생 4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언어를 활용한 문제 해결 과정,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 서로 소통하며 어울리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구성했다.

이번 캠프는 오늘부터 8월 1일까지 총 2박 3일간 부안군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일원에서 세계언어활용, 세계문화체험, 환경보호 등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데 필요한 핵심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되며, 다언어캠프 활동과 연계하여 교육부가 주최하는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 참가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성숙한 의식을 기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성을 인정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해, 민주시민의 소양과 역량을 갖춘 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지원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다양성교육을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장은성기자

'2019 사제동행 국외 역사체험학교' 가 오는 31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우수리스크 일대에서 진행된다.

연해주에서 대한민국 독립운동역사 배운다

전북교육청, 내일까지 '사제동행 국외 역사체험학교' 진행

도내 고등학생들이 교사와 함께 연해주 지역에서의 대한민국 독립운동 발자취를 살펴보는 역사체험에 나선다.

29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19 사제동행 국외 역사체험학교' 가 오는 31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우수리스크 일대에서 진행된다.

블라디보스토크는 을사늑약 이후 국내에서 항일운동을 전개하던 애국지사들의 대표적인 망명지로 항일 독립운동 사적지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

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쪽으로 약 100㎞ 떨어진 우수리스크에는 수많은 한인마을이 형성돼 있다.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은 1910년대 민족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곳으로 구한말 이후 꾸준히 전개된 항일투쟁의 열기와 유적지들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이번 역사체험학교에는 도내 고등학교 1학년 중 심사를 통해 선발된 학생 30명과 지도교사 6명 · 독립운동사 전공 교수 1명 등 총 40명이 참여한다.

지난 27일 러시아로 출발한 탐방단은 첫날과 둘째 날은 우수리스크에서 헤이그 밀사 이상설 선생 유허비, 발해 5경 12부중 하나인 솔빈부 발해 옛성터, 안중근 의사 기념비, 독립운동의 대부이자 한인사회의 영웅 최재형 선생 마지막 거주지, 한·러 고향마을 등을 탐방했다.

이어 셋째 날에는 크라스키노로 이동해 러시아 최초의 한인마을 '지신허', 국내외 의병세력의 통합군단을 표방한 '차피거우 13도의군 편성지', 안중근 의사 단지동맹 기념비, 장고봉 전투 승전 기념탑 등을 탐방한다.

넷째 날과 마지막날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세계대전에 참전해 독일 함대 14척을 격파한 'C-56 잠수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한 '개선문', 블라디보스토크의 심장인 '혁명광장', 러시아 정교회 성당, 과거 한인들을 기리는 신한촌 기념비 등을 탐방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전문대학 동반성장 국제교류 간담회 개최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대학 동반성장 국제교류 활성화 관련 간담회를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제교류 관련 전국 16개 우수 전문대학 담당자들이 참가했으며, '전문대학의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국제교류 및 글로벌 인재양성에 대한 전문대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 글로벌 통용성의 교육모델 운영 △ 해외 대학간 교류(학위제 운영, 학점 교류 등) △ 지속가능한 유학생 유치를 위한 선순환 체계 구축 △ 해외문화의 수용성 차원 다문화 이해 교육 등이다.

신종수 국제교류팀장은 "이번에 진행된 전국 전문대학들의 국제교류 활성화 및 동반 성장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한국 전문대학의 국제교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